



안보의 정치: 냉전 초기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

홀저 네링 스텔링 대학

이 글이 다루고자 한 질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즉 핵군비경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두 초강대국의 첫 번째 데탕트 기간까지, 영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사람들에게 특히 냉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이다. 이 글은 당시 반핵운동이 냉전의 정치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핵운동을 안보정치에 대한 대항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특정한 기억이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폭격의 기억은 냉전을 항시 전쟁 직전의 상태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주제어 안보의 정치, 냉전, 영국, 서독, 반핵운동

I. 서론

1959년 1월, 철학자 귄터 앤더스(Günther Anders)는 1945년 8월 6일 미국 공군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히로시마를 곧 ‘세계의 상태(world condition)’라고 정의했다. 앤더스가 서베를린에서 개최된 반핵학생회의에서 ‘원자력 시대에 대한 테제(Theses for the Atomic Age)’란 주제로 보다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젠 “우리 지구의 어떤 곳이거나, 심지어 지구 전체(Any given place on our planet, and even our planet itself)”가 “또 다른 히로시마(into a Hiroshima)”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Anders, 1962: 505). 또한 그는 냉전을 단순히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의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바로 핵군비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그것이 당시 정치,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 때문이다. 무엇보다 앤더스는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자(human agency)의 주체적 역할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

번역: 조비연/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Karl Marx)와 정반대로, ‘원자력 시대(atomic age)’를 곧 실존적 제약이라 인식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노력 없이도 어쨌든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변화를 재변화시키는 것, 즉 우리 없이 세상이 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Anders, 1980: 5; Nehring, 1956)

이 글이 다루고자 한 질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즉 핵군비경쟁이 시작한 시점부터 두 초강대국의 첫 번째 데탕트 기간까지, 영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사람들에게 냉전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이다. 앤더스와 유사하게, 이 글은 핵군비경쟁을 냉전의 핵심요소로 다루고자 한다. 핵경쟁은 냉전을 전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당시 각국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글이 앤더스의 주장과 다른 점은, 바로 냉전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평화운동의 문제는 유럽 두 국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상이한 역사를 가진 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처럼, 어떻게 시민사회가 냉전의 와중에서 핵 위협에 대처했는지 이해하는데 큰 교훈을 줄 것이다.¹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냉전 초기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을 살펴본다. 이 글은 두 나라의 주류 정치와 반핵운동이라는 대항문화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반핵운동은 각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들에 의한 변증법적이고 대화적인 과정이다. 이 글은 특히 영국의 ‘핵무기 철폐운동(C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과 서독의 ‘핵사망 반대운동(Campaign against Atomic Death),’ 그리고 ‘부활절 반핵행진(Easter Marches of Nuclear Weapons Opponents)’의 사례들을 다룰 것이다. 각 사례에서 반핵운동가들은 어떻

¹ 이 주장은 필자의 저서 *Politics of Security.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and the early Cold War*(Oxford: OUP, 2013)에서 출발한다. 비유럽 지역의 반핵운동에 대한 자료는 Jones(2012); Yamamoto(2006) 참조.

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담론과 행위들에 대해 도전하고 발전시켰으며, 기존 안보담론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두 나라의 반핵운동가들을 정치체제의 경계에서 활동하되, 여전히 그 체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 앞의 이방인(strangers at the gates)’이라 표현하고 싶다(Tarrow, 2012: 3).

이 글은 ‘안보의 정치’란 개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안보(Security)’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부터 냉전시기 영국과 서독에서 사용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재건 과정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미래의 군사대립, 위협에 대한 안보 개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무엇보다 사회, 경제, 외교, 국방정책을 잇는 코드 역할을 했다(Conze, 2005). 냉전 기간에는 ‘국가안보’가 ‘안보’의 모든 개념을 독점했다.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경우 주로 정부의 정책과 정치 전반을 설명하는데 이 개념을 활용했다. 추가적으로 안보란 개념은 통상 안정, 현상유지, 안전, 위협기피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어서, 주로 유토피아적 구상을 회피하는 의미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안보’에 대한 정의들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며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이다(Buzan, 1991: 3-5).

II. 반핵운동의 배경

핵무기에 대한 반감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중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59년 개최된 제2회 연례 영국 반핵운동의 경우 약 2만~2만 5,000명이 최종 집회에 참여하여 올더마스틴(Aldermaston), 버크셔(Berkshire),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핵무기시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1960년엔 약 6만~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핵운동가들이 런던 트라팔가 광장 집회에 집결했다. 이어 1961년엔 약 4만~5만 명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Taylor, 1988: 42, 57, 77, fn. 16 참조). 반핵운동은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었는데, 1964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총 10만 명이 넘는 운동가들이 활동했다. 미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Rupp, 1970: 130-143; Wittner, 1997: 220). 유럽

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핵운동은 영국과 서독, 이 두 곳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핵운동의 최성기였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엔 수십만 명이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핵운동에 대한 다수 여론의 암묵적 동의가 거지에 깔려 있었다.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은 모두 1950년대 중반에 진행된 핵무기 실험과 이로 인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나라 반핵운동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우 당시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란 배경 속에 반핵운동이 진행되었던 반면, 서독은 그때 비로소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반핵운동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점차 핵무기 감축이란 동일한 주제로 수렴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평화서약연합(Peace Pledge Union)을 중심으로 한 핵폭탄 실험과 실험거지에 대한 반대시위가 열렸다.

1957년엔 두 개의 조직이 추가적으로 창설되었는데, 하나는 영국의 태평양 내 수소폭탄 실험에 반대하고자 만들어진 직접행동위원회(DAC: Direct Action Committee)로 그린피스와 유사한 전략을 이용했다. 또 다른 하나는 1957년 2월 반핵운동의 공식 출범에 앞서 조직된 핵실험반대국민위원회(NCANWT: National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ests)다. 이 조직은 DAC의 활동과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후자보다 온건한 경향을 띠었다. 이후 1958년 초 NCANWT는 새로 설립된 영국의 핵무장철폐운동단체 CND로 병합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CND는 그로부터 일방적 폐기선언을 영국의 국방정책으로 채택시키고자 운동을 펼쳤다. 1960년 가을엔 CND 내부에서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대변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과 그의 비서 랄프 슈엔만(Ralph Schoenman)이 CND를 떠나면서 반전단체 100인위원회를 설립했다.²

1958년 초에 열린 독일의 핵사망 반대운동(Campaign against Atomic Death)은 아데나우어(Adenauer) 정부의 핵무장정책에 반대한 사민당(SPD)과 노동조합에 의해 촉진되었다. 하지만 사민당이 이런 기존의 반핵투쟁노선에서 탈피한 이후엔

² 100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ylor(1988) 참고.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960년 함부르크에서는 소규모로 구성된 웨이커 교도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최초의 반핵 시위행진을 벌였는데, 이는 영국의 부활절 평화행진(Easter Marches)을 본 딴 것이었다. 1961년 이후엔 독일 전역으로 반핵행진이 퍼져나갔다. 1962년 9월에 와서는 반핵운동의 명칭이 부활절 반핵행진(Easter Marches of Nuclear Weapons Opponents) — 무기철폐운동으로 변경되었다. 새롭게 나타난 또 다른 흐름은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단체들이 서로 초국가적인 연계를 모색한 것인데,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로 설립한 반핵운동기구(European Federation against Nuclear Arms)와, 1963년 이후부터는 국제핵무기철폐 평화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rmament and Peace) 기구를 통해 활동하고자 했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신설 기구들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자금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술한 영국과 서독 반핵운동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강력한 반공산주의적 풍토에 기인한다. 물론 영국과 서독의 정치, 문화 모두 반공산주의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었지만, 이러한 정치적 풍토는 서독의 반핵운동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독일은 두 개의 분단국가로 나뉘어 경쟁구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 대립에서는 보다 자유로웠던 영국과 달리 반핵운동에서의 의사표현과 행동 범위가 훨씬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³ 여기서부터는 크게 4가지 핵심주제를 통해 어떻게 영국의 반핵운동을 둘러싼 안보정치가 냉전의 의미와 성격을 곧 ‘유럽의 전쟁’으로 구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III. 군비경쟁의 가시화

기존의 냉전사 연구들은 당시 반핵운동가들의 급진적 경향을 집권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한 것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Suri, 2005 참조). 하지만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은 이들의 급진성은 오로지 집권 정부에 대한 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³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hring(2005) 참고.

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가시화된 전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가능성을 제공했다. 핵무기에 대한 논의의 경우, 운동가들은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상기시키고 그 기억이 남긴 아픔을 극복해나가는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대두되는 핵 위협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들의 안보정치란 크게 세 가지 상호 연관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통해 냉전에 재현되기 시작한 핵 위협을 자각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기억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특정한 정치적 참여 방법을 요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지역적·국가적 프레임에 제약되어 있는 평화운동을 초국가적 수준으로 연계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가들이 냉전이란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셈이다. 무엇보다 냉전체제의 안정성의 핵심요소였던 상호확증파괴전략(MAD)은 1950년대 말에 구축되어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파괴의 현실가능성이란 전제를 기반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미래에 범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만들어낸 가설에 의한 것이었다. 요컨대, 냉전시기 군비경쟁은 각 사회들이 그럴 듯하게 개발한 시나리오에 의존한 것이다. 즉, 군비경쟁은 현실화된 허구다(Pias, 2009). 영국과 독일의 반핵운동가들은 바로 이러한 냉전의 허구적 실재를 드러내고, 이 논쟁을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잔상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군비경쟁에 내재된 전제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치적·사회적 지식을 획득했다.

IV. 냉전과 전후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 반핵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연상시키고, 이를 통해 핵무장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던 영국과 서독 사회를 일깨우려 했다(Moeller, 2003). 1960년대 초에 접어들 무렵 그들에게 이미 냉전은 곧 제2차 세계대전의

재현이란 위협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렇듯 서유럽 전반은 유사한 전쟁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국과 서독 사회가 겪은 전쟁의 여파가 서로 다른 시기, 다른 형태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겪은 독일은 전쟁의 여파가 훨씬 강했다(Biess and Moeller, 2010).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의 뇌리에는 전쟁의 폭력과 충격의 악몽이 영국보다 훨씬 더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차 풍요로운 이른바 정상 사회가 되었어도 여전히 과거에 대한 공포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었다(Goltermann, 2009: 17, 29). 영국의 반핵운동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형성된 국가의 통합과 민족주의적인 사회가 그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사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당시 목도한 참혹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인식했다(Hinton, 2010: 13).

하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이 서독에서 갖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전쟁의 잔상은 서독의 반핵운동가들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쟁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독일인들에 의한 폭력과 ‘더불어’ 독일인에 대한 폭력의 결과를 함께 지우고자 하였지만”, 폭력에 대한 논의는 전쟁에 대한 다른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여전히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일말의 인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폭력의 경험은 그들에게 희생자라는 시각에서의 기억으로 나타났다.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이 독일에서 처음 열린 부활절 반핵행진에서 만들어낸 베르겐-벨젠(Bergen-Belsen) 강제 수용소와 영국의 베르겐-호네(Bergen-Hohne) 미사일 기지 사이의 상징적 연결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다. 이것은 ‘속죄를 동반하는 변화(redemptive transformation)’로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역설적으로, 냉전뿐만 아니라 미숙한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들만의 적극적 행동주의로 나타나게 해주었다(Biess, 2005).

반핵운동가들이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사용한 ‘시민권 침해’ 개념은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안보정치의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이 독일의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이나 병역의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독일 정부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다(Geyer, 2001). 이는 서독의 반핵운동이 처음에는 비주류의 영역에 속했고, 따라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논란을 일으킨 궁극적

인 이유는, 무엇보다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시민적 주권과 국제사회에서의 독일의 주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은 데에 있다. 영국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저항운동 양상을 보인 반면, 서독의 부활절 반핵행진은 ‘탈의회적 반대’로 변모되어 안보정치가 의미하는 기반을 심대하게 바꿔버렸다.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을 둘러싼 긴장과, 서로를 겨냥한 소련과 미국의 장갑차, 이어 1962년 가을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세계가 마치 핵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마침내 유럽에 미-소 간의 새로운 지정학적인 처리방식(modus operandi)이 등장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사용 억지를 위해 ‘상호확증파괴시스템(MAD)’을 작동시키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Trachtenberg, 1999). 이런 새로운 현상은 미국, 소련, 영국이 1963년 체결한 국제조약을 통해 대기권 핵실험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과 서독 정부는 성공적으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군비경쟁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 이 두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안전수칙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데 집중했고,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군비경쟁 위협의 대상이 아닌 근대화의 상징으로 대체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1963년 즈음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의 안보정치는 더 이상 냉전 양 진영의 군비경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Wittner, 1998).

즉, 핵무기 실험을 통해 가시화되던 군비경쟁의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자, 핵무기는 더 이상 냉전을 이해하는 핵심요소가 아니었다. 대신, 평화운동은 점차 베트남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폭력적 실상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문화 같은 미국의 이념들이 보이지 않는 냉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 반핵운동가들이 냉전을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에 대한 기억에 빚대어 본질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것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1960년대 중반부터는 냉전을 다른 형태와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시위자들 대다수가 미국과 이른바 ‘제국주의’를 개발도상국가들의 잠재적 해방을 위협하는 냉전의 화신으로 간주했다. 반핵운동가들은 과거 안보에 대한 논쟁에서 그들의 목표를 이제 ‘해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반핵운동가들은 유토피아적인 ‘평화’보다, 당대의 논의를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안보’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의 시위운동을 프레임함으로써, 자신들을 냉전이란 역사 속의 주체로 만들었다. ‘국가안보’로 정의되는 ‘안보’는 당대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핵심 이념 중 하나였다. 이와 반대로, ‘평화’는 공산주의의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여겨졌다. 반핵운동가들이 사회와 정치단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당시 논쟁에서 사용되던 주류 개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된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⁴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기억을 활용하면서, ‘안전’이란 개념을 외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무력공격 가능성의 배제로 인식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복지국가가 보장하는 국내 정치의 안정, 통합과 화합, 그리고 풍족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서독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활용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는 독일이 폭력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로, 독재 정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분단 국가에서 단일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러한 이행을 보장하는데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게이어(Michael Geyer)의 표현에 따르면, “국제관계에서의 치명적인 친밀성은 힘의 정치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로 만들어 버렸다”(Geyer, 2001: 378).

V. 반공주의와 냉전시기 정치문화

따라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난 반핵운동은 두 국가의 냉전시기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과 독일의 운동가들은 각각 자국의 정치사회에서 일련의 대립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두 국가의 반핵운동들은 모두 좌파진영 정치 단체의 토대가

⁴ ‘alternative futures’라는 개념은 Arif Dirlik(1998: 365)에서 찾을 수 있다.

되었고 주류 정치에 대한 깊은 불만으로 발전했다 — 서독의 경우 사민당(SPD), 영국의 경우 노동당과 공산당 —.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CND와 독일에서의 핵사망 반대운동과 부활절 반핵행진은 정치적 실험의 장을 제공했다.

물론 서독의 반핵운동으로부터 발전된 안보정치의 특정한 ‘콘텐츠’가 —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강조한 — 영국 안보정치의 콘텐츠보다 주류 여론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주장하기 위해 더 다양한 유형의 시위운동이 발달했다. 서독은 영국과 달리 냉전의 최전선에서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고, 반공주의와 반사회주의적 정서가 지속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독일의 첫 번째 민주주의를 와해시킨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가전 기억이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독의 정치는 영국보다 훨씬 엄격한 제약 속에 갇혀 있었다. 사민당을 기점으로 좌편향적인 모든 것이 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관련된 아티스트와 음악, 연극과 문화 활동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에 걸쳐 주류 대중문화가 점차 비정치화되었는데, 이는 바로 비정치화된 대중문화를 민주주의가 가져온 풍요라는 표면적인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시대상황 때문이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점차 ‘또 다른 독일’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탈의회적인 반대운동을 지탱한 시위문화는 여전히 매우 정치적으로 남아 있었다.⁵ 이는 곧 서독의 탈의회-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이외의 이슈들까지 다루는 통일된 인식 틀과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에 비해 영국에선 문화 자체가 보다 쉽게 정치를 대체했다. 하위문화와 저항문화들이 때때로 정치적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캠페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⁵ 주류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Poiger(2000) 참고.

VI. 초국가적 연계

반핵운동가들은 냉전이 만들어낸 경계선을 허물고 기존의 정치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관을 만들어냈다. 이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근대 민족국가가 상정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통해 가능했다. 따라서 그들은 민족국가의 정치윤리적인 힘이 국제질서를 결정짓는다는 시각에 도전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과 서독 반핵운동가들의 초국가적 연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와 인식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초국가적 소통이란 과정이 수반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모호성이 드러난다. 반핵운동가들이 주장한 초국가적 연계에 담긴 함의와 달리,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각 사회의 주어진 자원과 네트워크, 기회에 의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반핵운동의 유형과 수단, 그리고 인식의 틀을 전달한다는 것은 항상 ‘전달’이란 개념에 충분히 포괄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동반했다. 지식이란 것이 서로 다른 초국가적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는 특정 행위자들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보다도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반핵운동가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핵운동가들을 상호 평가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함께 교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또한 제3자와 비교했다. 이는 초국가적 관계가 대부분 대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자주 경쟁적이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⁶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반의 반핵운동에는 영국의 CND가 이 두 운동의 관계에서 거의 절대적인 ‘인식론적인 주권(epistemological sovereignty)’을 가지고 있었다(Laqueur, 1989: 188). 즉, CND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반핵운동의 원조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궁극적으로는 탈식민지화된 국가들을 고귀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영연방을 묶어주는 대영제국의 문명화

⁶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hring(2005a) 참고.

임무(civilizing mission)의 일부로 인식했다. 반핵활동가들이 인도에서의 간디의 캠페인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들의 실제 역사로부터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CND가 가진 ‘인식론적 주권’의 권위를 강화했다. 서독의 부활절 반핵행진은 영국의 반핵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영국의 이러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CND를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의 전통이라 여겨진 평화, 급진주의,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특히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⁷ 즉, 서독의 부활절 반핵행진은 영국의 시민단체 모델을 서독의 맥락으로 가져오고자 한 시도였다. 영국 중산층의 사교성과 시민의식, 포퓰리스트적인 집회보다 토론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은 서독이 영국의 반핵운동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VII. 결론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이 체결되면서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이 줄어들자,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가들은 냉전의 이념과 거버넌스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투영해 냉전을 해석하기보다는, 냉전의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안보정치는 한편으로 냉전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수월하게 핵군비경쟁을 하나의 정치적 문제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핵무기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Wittner, 1968). 역설적으로, 이것은 곧 오늘날의 전쟁이 — 냉전과 같은 — 계속되는 핵전쟁이란 위협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점차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안보정치가 핵무기로부터 벗어나 미국 제국주의와 1960년대 중반의 ‘풍요’의 문제로 이전한 것은 ‘인식론적 주권’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포하는 것이다. 영국과 서독 대부분의 평화운동가들은 이제 미국 사회,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도처의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 사회의 활동가

⁷ 이 아이디어의 유래는 Lawrence(2003) 참고.

들이 저항정치를 형성하는 기초 지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미국의 활동가들은 오히려 영국을 통해 알게 된 간디주의 정치의 직접 행동주의와 시민 불복종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Chabot, 2012). 이제 그들은, 이것이 또한 냉전의 이분법이라는 제한을 벗어난 정치프로젝트로서 ‘제3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전보다 훨씬 명확히 부각시켰다. 이런 경향은 점차 정치적 급진주의가 발생하고 행동하는 공간을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합리적 시민’이라는 주제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치윤리적 개입의 형태를 불러왔다. 영국과 서독 활동가들 모두 각자의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과 이해의 지배적인 틀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각 정부와 정당에 저항했다. 이렇게 평화운동가들은 과거를 투영해 현재를 보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투고일: 2015년 5월 11일 | 심사일: 2015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15일

참고문헌

- Anders, Günther. 1962. “Theses for the Atomic Age.” *The Massachusetts Review* 3(3), 493-505.
- _____. 1980. *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 vol. 2: Über die Zerstörung des Lebens im Zeitalter der dritten industriellen Revolution*. Munich: C.H. Beck.
- Biess, Frank. 2005. *Returning POWs and the Legacies of Defeat in Postwar Germany*. Princeton: Princeton UP.
- Biess, Frank and Robert W. Moeller, eds. 2010. *Histories of the Aftermath: The Legacies of the Second World War in Europe*. New York: Berghahn.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 ECPR Press.
- Chabot, Sean. 2012. *Transnational Root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frican American Explorations of the Gandhian Repertoire*. Lanham, MO: Rowman & Littlefield.

- Conze, Eckart. 2005. "Sicherheit als Kultur: Überlegungen zu einer "modernen Politik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3, 357-380.
- Dirlik, Arif. 1998. "There is a more in a rim than meets the eye. Thoughts on the "Pacific Idea"." In idem, ed. *What is in a Rim?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acific Region Idea*, 351-69.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Geyer, Michael. 2001. "Cold War Angst: The Case of West-German Opposition to Rearmament and Nuclear Weapons." In Hanna Schissler, ed. *Miracle Years*, 376-408. Princeton: Princeton UP.
- Goltermann, Svenja. 2009. *Die Gesellschaft der Überlebenden: Deutsche Kriegsheimkehrer und ihre Gewalterfabrungen im Zweiten Weltkrieg*. Munich: C. H. Beck.
- Hinton, James. 2010. *Nine Wartime Lives*. Oxford: OUP.
- Jones, Matthew. 2012.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Cambridge: CUP.
- Laquer, Thomas W. 1989. "Bodies, Details, and the Humanitarian Narrative." In Lynn Hunt, ed. *The New Cultural History*, 176-204. Berkeley: UC Press.
- Lawrence, Jon. 2003. "Forging a Peaceable Kingdom: War, Violence and the Fear of Brutalisation in Post-First World War Britain." *Journal of Modern History* 75(3), 557-589.
- Moeller, Robert W. 2003. *War Stories: The Search for a Usable Pas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rkeley: UC Press.
- Nehring, Holger. 2005a. "National Internationalists: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Communications and the Social History of the Cold War, 1957~1964."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4(4), 559-582.
- _____. 2005b. "Politics, Symbols and the Public Sphere: The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in Britain and West Germany, 1958~1963." *Zeithistorische Forschungen/Studies in Contemporary History* 2(2), <http://www.zeithistorische-forschungen.de/2-2005/id=4614> (최종 검색일: 2015. 6. 22).
- _____. 2011. "Technologie, Moderne und Gewalt: Günther Anders, 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 (1956)." In Habbo Knoch et al., eds. *Klassiker modernen*

- Denkens neu gelesen*, 238-247. Göttingen: Wallstein.
- _____. 2013. *Politics of Security.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and the early Cold War*. Oxford: OUP.
- Pias, Claus. 2009. "Abschreckung denken: Hermann Kahns Szenarien." In Claus Pias, ed. *Abwehr. Modelle – Strategien – Medien*, 169-188. Bielefeld: Transcript.
- Poiger, Uta G. 2000. *Jazz, Rock and Rebels. Cold War Politics and American Culture in a Divided Germany*. Berkeley: UC Press.
- Rupp, Hans Karl. 1970. *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in der Ära Adenauer: Der Kampf gegen die Atombewaffnung in den fünfziger Jahren. Eine Studie zur innenpolitischen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Cologne: Pahl-Rugenstein.
- Suri, Jeremi. 2005. *Power and Protest. Global Revolution and the Rise of Détente*. Cambridge, MA: Harvardc UP.
- Tarrow, Sydney. 2012. *Strangers at the Gates. Movements and States in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Richard. 1988. *Against the Bomb. The British Peace Movement 1958-1965*. Oxford: OUP.
- Trachtenberg, Marc. 1999. *A Constructed Peace. The Making of the European Settlement, 1945-1963*. Princeton: Princeton UP.
- Wittner, Lawrence S. 1968. "The Nuclear Threat Ignored: How and Why the Campaign against the Bomb Disintegrated in the late 1960s." In Carole Fink, Philipp Gassert, and Detelf Junker, eds. *The World Transformed*, 439-458. Cambridge: CUP.
- Wittner, Lawrence S. 1997. *Resisting the Bomb.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1954-1970*. Stanford: SUP.
- Wittner, Lawrence S. 1998. "The Nuclear Threat Ignored: How and Why the Campaign against the Bomb Disintegrated in the late 1960s." In Carole Fink, Philipp Gassert, and Detelf Junker, eds., *1968: The World Transformed*, 439-458. Cambridge: CUP.
- Yamamoto, Mari. 2006. *Grassroots Pacifism in Postwar Japan*. London: Routledge.

Abstract

The Politics of Security: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and the Early Cold War

Holger Nehring University of Stirling

This essay tackles the question of what international politics in general and the Cold War in particular meant to people in Britain and West Germany. The period of discussion is from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to the late 1960s and from the beginnings of the nuclear arms race to the first signs of détent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It highlights how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 were deeply embedded in the political cultures of the Cold War and how the cultures were produc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is oppositional politics of security consist of the specific memories of the Second World War: the memories of the bombing over Europe provide a template for understanding the Cold War as a constant pre-war situation.

Keywords | politics of security, Cold War, British and West German protests against nuclear weapons